

아이디어 공유하고 디지털화... 청년들 '창업 실험실'

광주형 청년창업 모델을 찾아서

<9>獨 '팹랩 베를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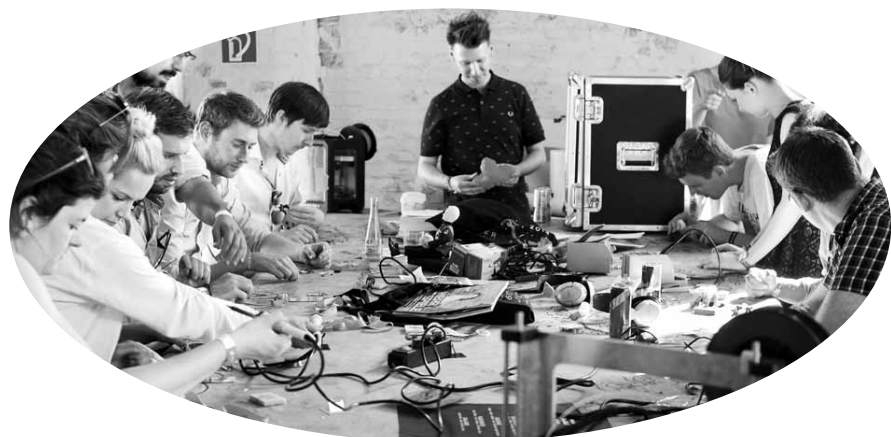
3D프린터·레이저 커터 등 장비·시설 갖춰
전문 DIY스튜디오 만나 장비 활용 창업도
워크숍·커뮤니티 운영 베타하우스와 비슷
의족·의수회사 오토복 건물 사용 도움 줘
한국·일본 등서 청년창업 핫아이템 급부상



독일 베를린의 '팹랩 베를린' 외관. 3D프린터와 공구 등 각종 장비가 구비돼 있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유럽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이 이곳에서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활발한 창업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팹랩 베를린' 벽면에 비치돼 있는 각종 공구들.



매주 금요일 초보자들도 각종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사를 연다.



목공 제작 장비를 활용해 기능성 목재의자를 개발하고 있는 독일 청년들.

검은색으로 꾸민 건물 외관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널찍한 회의테이블이 보인다. 그곳을 지나치자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온갖 공구들과 3D프린터 등 장비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 가운데 테이블엔 청년들이 앉아 무엇인가 '작당'을 꾸미는 것처럼 보였다.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사람도, 홀로 방문해 3D프린터를 조작하는 사람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분방하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팹랩 베를린'(Fab Lab Berlin)은 마치 앞서 방문했던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베타하우스'(Betahaus)를 닮았으면서도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다. 각종 장비들이 구비돼 있고 간혹 톱날이 돌아가며 목재를 자르는 특유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팹랩은 제작(Fabrication)과 연구소(Laboratory)의 합성어로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디지털 장비로 현실화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팹랩은 2001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시작돼 현재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각지로 번어나가고 있는 추세다.

팹랩 베를린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적인 팹 연구소의 일원이다"며 "전문 DIY 스튜디오와 훌륭한 제작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팹랩 베를린은 600㎡(182평) 규모로 3D프린터와 레이저커터, CNC라우터, 목공장비, 비닐컷팅, PBC밀링 등 다양한 장비·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교육만 거치면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다. 아직 장비를 다루기 힘든 이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저녁 실험실 문을 열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방형 랩 데이"로 기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디지털 제작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장비를 다루는 방법도 배우고 팹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팹랩 베를린 역시 베타하우스처럼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워크

숍과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 이곳에서는 구축돼 있는 장비를 활용해 창업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도 방문할 수 있었다.

한국의 베 짜는 기계와 똑같은 장비와 재봉틀을 이용해 가방을 만드는 비영리 회사 'mimycr'이다. 이들은 시리아 등 난민과 함께 난민들이 타고 오다가 버려진 고무보트를 재료로 고품질의 가방·배낭을 생산하고 있었다. 장비와 공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게 느껴졌다.

또 재밌는 것은 팹랩 베를린이 최근 공간을 확장해 이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독일 기업의 도움이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의족·의수 제작회사로 잘 알려진 장애인 헬스케어 기업 오토복(Ottobock)은 팹랩 베를린이 자신들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팹랩의 장비를 활용해 다양한 의족·의수 등 장애인을 위한 제품을 기획하고 직접 생산해 시험할 수 있는 등 상부상조하고 있다.

이제 팹랩은 미국과 유럽을 넘어 일본과 한국에서도 청년창업에 있어 핫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에 이어 부산 등지에서도 팹랩이 문을 여는 등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팹랩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공간을 찾는다면 '무한상상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과학관·도서관·주민센터 등에 무한상상실을 공방처럼 꾸민 뒤 함께 실험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스토리텔링·아이디어 클럽을 운영하는 곳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광주에는 현재 국립광주과학관과 바림미디어스페이스 등 2곳이 있지만 아직 청년들의 정업을 위한 공간으로는 적극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메이커(Maker) 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에서도 메이커 운동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천교육을 하고자 하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